

‘사라진 범죄’ 소매치기, 전통시장서 활개

광주지역 현금 사용 많은 노인들 표적 피해 끊이지 않아 소액 현금 슬쩍...신고 드물고 상인들도 손님 줄까 '쉬쉬'

5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께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소매치기 범죄를 당했다. A씨는 장바구니에 달린 앞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놓은 채 야채를 고른 후,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20만원이 갑작스럽게 사라졌다고 한다.

A씨는 바로 전까지만 해도 다른 점포에서 계산을 한 탓에 소매치기 범죄임을 직감하고, 야채 상인에게 하소연 했더니 "사람이 몰탈 때 소매치기가 종종 발생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물건을 고르려고 잠깐 주의가 소홀한 틈에 소매치기꾼이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을 빼갔다"며 "누가 가져갔는지 알기 힘들고 피해액도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는 안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라져 경찰 사이에선 '추억의 범죄'로 불리는 소매치기가 광주지역 일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통시장은 현금 결제가 많고 이용층의 연령이 높다는 점에서 소매치기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소매치기는 사실상 사라진 범죄 유형이라며 별다른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범죄는 2014년 38건(검거 23명), 2015년 20건(7명), 2016년 5건(1명), 2017년 13건(7명), 2018년 4건(0명), 올해 2건(0명) 등 매년 감소 추세다. 전남에서도 2014년 17건(7명), 2015년 26건(7명), 2016년 23건(5명), 2017년 10건(3명), 2018년 12건(2명), 올해 5건(1명) 등 비슷한 양상이다. 물론 이 수치는 경찰에 접수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소매치기는 증거가 되는 범죄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CC-TV가 사회 곳곳에 설치되고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사실상 사라진 범죄 유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경찰청 범죄분석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소매치기 발생건수는 1977년 5170건(2660명 검거)에서 1997년 1783건(739명), 2017년 821건(317명) 등 지난 40여 년간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한때 소매치기 전담팀까지 구성했던 일선 경찰에서도 소매치기 범죄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광주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은 "요즘 소매치기범이 어디 있느냐"며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추악의 범죄가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금 사용이 잦고 노인 이용객이 많은 재래시장은 여전히 소매치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CC-TV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단독으로 행동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지갑은 그대로 둔 채 소액의 현금만 슬쩍 빼내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소매치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단시간에 피해사실을 알아채기 힘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애매하다는 게 피해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여러 건의 소매치기 범죄가 발생한 광주 모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내 설치된 CC-TV가 51개에 달하지만, CC-TV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소매치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액이 소액인 탓에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상인들도 소매치기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손님의 줄어들까봐 상인들끼리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 상인은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손님이 있지만, 상인들 사이에서 소매치기 이야기를 하면 따돌림을 당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매치기범은 손님이 계산을 할 때 지갑 속 현금을 지켜보고 있다가 대상을 몰색한다"며 "가급적 지갑은 옷 안주머니에 넣어두거나 고액은 분산시켜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피해를 당하더라도 단시간에 피해사실을 알아채기 힘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애매하다는 게 피해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여러 건의 소매치기 범죄가 발생한 광주 모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내 설치된 CC-TV가 51개에 달하지만, CC-TV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소매치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액이 소액인 탓에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상인들도 소매치기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손님의 줄어들까봐 상인들끼리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 상인은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손님이 있지만, 상인들 사이에서 소매치기 이야기를 하면 따돌림을 당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매치기범은 손님이 계산을 할 때 지갑 속 현금을 지켜보고 있다가 대상을 몰색한다"며 "가급적 지갑은 옷 안주머니에 넣어두거나 고액은 분산시켜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분뻘이→각자내기, 종지부→마침표

국립국어원,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투 용어 50개 선정

"이제부터는 '분뻘이'는 '각자내기'로, '종지부'는 '마침표'로 바꿔 말하세요."

국립국어원은 573돌 한글날을 맞아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투 용어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어원이 이번에 선정해 발표한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2005)에 실린 단어 1100여개 가운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을 선별했다.

순화가 필요한 일본식 한자어(20개)로는 '망년회', '구좌', '익일', '기분', '잔고', '고잡', '가처분', '종지부' 등이 뽑혔다. 국어원은 이 단어들을 각각 '송년회', '계좌', '다음날', '선지급', '잔액', '선임', '임시 처분', '마침

표' 등으로 고쳐 부르자고 제안했다.

일본적 느낌이 더 강한 일본어 음차어(30개) 중에는 '나와바리', '단도리', '땡땡이', '만땅', '야나고', '무대뽀', '쇼부', '와사비', '쿠사리' 등이 순화 대상이다. 이 단어는 '구역', '단속'(채비), '물방울', '가득', '봉장어', '막무가내', '결판', '고추냉이', '핀잔'이 권장어다.

국어원 관계자는 "아직도 비공식적인 자리나 특정 전문 분야에서 일본어가 버젓이 쓰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일상생활에서 쓰는 음차어는 대부분 재미를 위해 사용하는데, 의식적으로 우리말로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사기 혐의' 마담 아버지 징역 3년·어머니 1년 선고

'연예인 빚투' 논란을 촉발시킨 레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회 2심 형사2단독(판사 하성우)은 8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

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운 뒤 이상 사유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젓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면서 "이후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젓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을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웃집 강도미수 30대 검거

나주경찰은 이웃집에 침입해 훔기로 집주인을 위협한 A(33)씨에 대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가정집에 들어가 가위로 30대 초반 여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A씨는 급히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B씨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모습을 봐왔다가 이날 빈 집에 들어갔으며, 집에 귀가한 B씨에게 발각되자 준비한 가위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승강기를 벌이다 제압하지 못하고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얼굴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범행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여수에서 A씨를 붙잡았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

택시 조수석 탄 만취 여성, "뒷좌석 타라"는 요청에 기사 폭행

○...“뒷좌석에 타라”는 말에 격분해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른 30대 여성이 폭행 혐의로 경찰서행.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여·38)씨는 이날 새벽 4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주점 앞에서 B(68)씨의 택시 조수석에 오르면 중 “뒷

좌석에 타라”는 B씨의 요청에 화가나 맥살을 부여잡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

○...A씨는 자신을 말리던 또 다른 택시기사 C(54)씨의 복부에도 주먹을 휘둘렀는데, 만취상태로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전 연명의료 거부 신청 전국 보건소에서 받는다

임종이 임박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 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 시간만 연장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항암제·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약 30만 명이 신청하는 등 증가 추세지만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 자치단체별로 평균 1.6곳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 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때 상담시간 사전예약제를 통해 신청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치골 마을잔치 열렸네 8일 광주시 북구 오치중합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열린 '오치골 마을잔치'를 찾은 주민들이 체험마당과 플라마켓을 둘러보고 있다. 북구는 지역 간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헌마당을 개최했다.

목포·보성·나주시 잇단 화재...주민 대피 소동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치냉장고 주변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원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전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보성군 벌교읍 한 주택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260만 원의 피해를 내고 2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책상 등 가구가 불에 타고 그을렸지만 가족들은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